

■ 민선 5기 단제장에 듣는다

박우량 신안군수

# “새천년 대교·경비행장 박차”

“희망이 샘솟는 천사의 섬 신안”을 더욱 발전시켜 군민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이뤄내겠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바다와 갯벌·섬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신안군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차별화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며 “농·수·축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판매촉진을 통해 획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농·수·축산물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품목별 재배·가공·소포장 시설 등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품목별 시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군수는 섬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기존의 공영버스 운행과 주·야간 여객선 운항을 늘리고 본섬 인근 작은 섬에도 도선 건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연륙·연도교가 놓인 섬까지 직행 버스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도도~임자간 연륙교와 하의~신의간 연도교, 안좌~자라간 연도교를 기간내 완공하고 14개 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천년 대교’(암해도~암태도 연결)와 ‘흑산도 경비행장’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흑산도 경비행장’은 조만간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오는 2014년까지 완공, 40~50인승의 경비행기가 운항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신안군이 신(新)서해안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안을 기회와 번영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매진해 군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 바다·갯벌 천혜의 자원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 농·수산물 친환경 생산·판매 촉진 소득 증대

맞춰 축제 등을 개최해 대외적인 마케팅과 홍보로 판매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 소금으로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생산시설로 개선하고 저장 및 가공시설 확대와 소비자 직거래유도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군수는 ‘1개 마을 1개 소공민 만들기’ 등 ‘사계절 꽃피는 섬’을 조성하고 농촌 특유의 어메니티(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사업을 도입해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갈 복안이다.

또한 공립형 기술학교 정착 및 기술시설의 현대화를 비롯해 원어민교사 배치·장학재단 운영·원격영상 교육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교육행정을 통해 명문학교 육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신안군이 고용률에서 2년 연속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지원사업을

# 목포~中 카페리 취항 재추진

## 3차례 적자로 중단...市, 해운사와 직항로 개설 협의

목포시가 민선 5기 현안사업으로 목포~중국 직항로 개설을 추진,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최근 목포신항을 무역과 크루즈항으로, 목포항을 레저 및 여객 중심항으로 각각 기능을 부여해 특성 있게 개발해 동북아 항만·물류 거점도시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목포시는 목포~중국간 직항로 개설을 위해 해운사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중국간 카페리호 개설은 지난 2002년부터 3차례나 추진됐으

나 적자운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목포~중국 상하이간 카페리호 직항로는 ▲2002년 동남해운 ▲2003년 포시즈크루즈 ▲2007 케이페리사 등 선사에서 3차례에 걸쳐 추진했지만 매번 무산되고 말았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여객·화물수송실적은 43회의 계획항차중 39회 운항(운항률 90.6%)에 승객 1만790명(내국인 1만575명·외국인 733명)과 화물 235 TEU에 불과했다.

무산 이유는 사업자들의 사업수행 능력부족과 승객·화물미달에 따른 적자운영 탓이 크지만 운항을 뒷받

채출 수 있는 관계 기관들의 관심 부재도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목포시와 전남도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목포~중국간 직항로가 3차례나 무산됨에 따라 목포항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발돋움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현재 어느 곳에서도 이를 거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서모(목포시 영해동)씨는 “목포시와 전남도가 합동으로 직항로 개설 추진단을 구성해 목포항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 새 얼굴

# “아동·청소년·노약자 치안에 최선”

## 박승주 해남경찰서장



“주민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직위간 인화단결로 더욱 신뢰받는 해남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2일 취임한 박승주(57) 해남경찰서장은 “치안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노인 등 노약자 치안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직원들

의 복지 향상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성 출신인 박서장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1년 특차 간부후보 1기로 경찰에 투신한 후 고흥·광양 경찰서장·광주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22일~25일 ‘목포 마당 페스티벌’

## 마당극·마임·탈놀이...외국 아티스트 공연도

10년째인 ‘전국 우수 마당극 제전’이 ‘목포 마당 페스티벌’로 명칭을 바꿔 새롭게 태어난다.

목포 마당 페스티벌 추진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목포 유달 예술촌과 유달산 주차장 특설무대와 시내 ‘차 안 다니는 거리’에서 ‘목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전남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목포의 극단 ‘갯돌’이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마당의 꿈!’이라는 슬로건 아래 관객과 출연자가 스스럼없이 소통하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충돌, 웃음과 울음 등이 총 60여 개의

종목에 걸쳐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는 우수 마당극을 비롯한 마임·가죽극·서커스·마술·탈놀이·현대무용·콘서트 등 국내 초청 공연과 일본·미국·중국·프랑스·콜롬비아·네덜란드 등 외국 유명 아티스트의 외국 초청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목포 마당 페스티벌은 지난 2001년부터 문예회관을 시작으로 연산동, 북항동, 하당동, 죽교동을 순회하면서 소외된 지역민에게 다양한 공연문화를 선보이는 등 남도문화기행이라 불릴 만큼 인기를 끌어들였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변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광고**

<p>1. [주소] 1층 단독주택 1채 (면적 120㎡) 매각. 문의: 010-1234-5678</p> <p>2. [주소] 2층 아파트 2채 (면적 80㎡) 매각. 문의: 010-9876-5432</p> <p>3. [주소] 3층 오피스빌딩 1채 (면적 200㎡) 매각. 문의: 010-5678-9012</p>	<p>4. [주소] 4층 아파트 3채 (면적 90㎡) 매각. 문의: 010-3456-7890</p> <p>5. [주소] 5층 아파트 1채 (면적 110㎡) 매각. 문의: 010-2345-6789</p> <p>6. [주소] 6층 아파트 2채 (면적 70㎡) 매각. 문의: 010-1234-5678</p>	<p>7. [주소] 7층 아파트 1채 (면적 100㎡) 매각. 문의: 010-9876-5432</p> <p>8. [주소] 8층 아파트 2채 (면적 85㎡) 매각. 문의: 010-8765-4321</p> <p>9. [주소] 9층 아파트 1채 (면적 95㎡) 매각. 문의: 010-7654-3210</p>	<p>10. [주소] 10층 아파트 3채 (면적 75㎡) 매각. 문의: 010-6543-2109</p> <p>11. [주소] 11층 아파트 1채 (면적 115㎡) 매각. 문의: 010-5432-1098</p> <p>12. [주소] 12층 아파트 2채 (면적 80㎡) 매각. 문의: 010-4321-0987</p>
--	--	--	--

변원 부동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전화: 02-1234-5678